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영숙

2007년

#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김 영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김영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 <국문 초록>

#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김 영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sup>1)</sup>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아동의 출생순서, 아버지 연령, 아버지 학력수준,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들(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중 어느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816명(남학생 423명, 여학생 393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측정도구로는 최경순(1992)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성 측정도구는 손순미(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43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분석은 SPSS(window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가족 환경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분

1)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제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젊은 아버지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나,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둘째, 아동의 사회성은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나, 아버지 연령,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은 높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 중 생활지도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가사활동 및 학습지도에 아버지가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풍부히 해주어 아동의 대인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근면성을 지니게 하므로 아동양육에 아버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어진다. 특히 아버지는 바람직한 아동양육을 위해 아동생활 전반에 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동과 대화를 많이 하며 아동의 고민, 친구관계 등을 알아 생활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3. 용어의 정의.....	5
<b>II. 이론적 배경</b> .....	6
1.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참여도.....	6
2. 아동의 사회성.....	14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18
<b>III. 연구방법 및 절차</b> .....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3
3. 연구절차.....	25
4. 자료처리.....	25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27
<b>V. 요약, 결론 및 제언</b> .....	45
1. 요약.....	45
2. 결론.....	50
3. 제언.....	52
<b>참고문헌</b> .....	53
<b>Abstract</b> .....	58
<b>부 록</b> .....	61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자의 가족 환경적 특성.....	22
<표Ⅲ-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24
<표Ⅲ-3>	사회성 검사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24
<표Ⅳ-1>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27
<표Ⅳ-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29
<표Ⅳ-3>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0
<표Ⅳ-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32
<표Ⅳ-5>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34
<표Ⅳ-6>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35
<표Ⅳ-7>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36
<표Ⅳ-8>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38
<표Ⅳ-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의 상관분석.....	39
<표Ⅳ-10>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다회귀분석.....	41
<표Ⅳ-11>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다회귀 분석.....	4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반면 아버지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책임지는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아버지는 엄격하고 원칙적이어서 훈육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보다 자애로운 존재로서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의식과 교육수준의 향상 및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성별에 따라 책임이 구분되던 전통적인 부모역할 분담 형태는 변모해 양성적인 부모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접촉관계에서 얻어진 경험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학습이 되고,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정서 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비행행동, 병리적 현상 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아버지 역할은 남자 아동의 성역할 학습에 영향을 주게 되며, 여아의 경우도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남성에 대한 관심과 남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엄정애·오영희, 1997). 즉 부모역할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똑같이 잘 해내거나 서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은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 중 한 쪽에게서만 받은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다고 (Lamb, Pleck & Levine, 1985)하므로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아버지만의 자녀양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하고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대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고, 아직도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로만 인식하여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등 자녀양육에 소극적이다.

또한, 핵가족 및 맞벌이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학부모들의 학업성취 위주의 관심으로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며 혼자 지내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성을 배우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요즘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배려하거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공격적이게 되어 학교에서 아동들 간에 다툼이 잦은 편이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한 자녀들이 사회성을 키우지 못하고 사회로 진출했을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계속해서 심리적 불안감, 초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회피하게 되며 학교에서 중도탈락, 청소년 비행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서승덕, 2002).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으며,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사회성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최경순, 1992; 윤서영·정옥분, 1999), 사회·정서적 능력(김광웅·이인수, 1998), 사회성(조성자·손은주, 1998; 박성지, 2003; 송요현, 2006), 또래 유능성(최지희, 2001), 학교생활적응(양미숙, 2006) 등 아동의 사회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김광웅과 이인수(1998)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 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자녀와 관계된 가사활동에 잘 참여하는 경우일수록, 아동들은 내적 통제력이 강하며,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시도하고, 성취동기 및 호기심이 높으며,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 참여도가 높은 아버지의 자녀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갈등 상황도 잘 극복해 내는 인지적 전략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윤서영과 정옥분(2000)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 가족적응 등 사회적 적응 전반에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로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질적 수준에서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데 있어 아버지-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 못지않게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양적 수준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동양육 및 그 참여도에 있어서도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이며, 아동의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존재하는 이상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좀더 유익한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각 발달 시기에 맞는 아버지의 역할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는 평소에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아동의 수준과 특성을 잘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아동의 출생순서, 아버지 연령, 아버지 학력수준,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들(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중 어느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출생순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학력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직업유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사회성은 가족 환경적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출생순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학력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아동의 사회성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들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거론되는 주요 용어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사회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함께 보내는 물리적·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의 양적 정도를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 영역으로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가 포함된다.

#### 2) 사회성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타인과 접촉하려는 사회적 욕구 내지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뜻으로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을 사회성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이 포함된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참여도, 아동의 사회성,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버지의 역할과 양육참여도

#### 1) 아버지 역할

전통적인 가정에서 부모는 남녀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여, 어머니는 가사담당자로서의 역할과 아동양육의 역할을 주로 하고,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며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책임지는 보호자, 사회규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아버지 역할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의 주요한 일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러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권위적이거나 일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는 존재였다.

아버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에는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 도구적·표현적 부모의 역할에 대한 Parsons의 이론,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이 있다.

Freud의 이론에서는 성역할 및 도덕성의 발달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아버지는 아동들이 이성의 부모에 대해 느낀 Oedipus Complex 및 Electra Complex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하게 되어 성역할을 습득하게 되고, 자녀에게 양심과 도덕성 발달에 필수적인 초자아를 내면화해주며 자녀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율이나 가치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Lynn, 1974).

Parsons는 아버지가 가족 내부로 사회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 속으로 가족

을 가져가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회화시키며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도와주고 사회의 가치나 도덕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아버지를 가족 내의 사회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가족의 대표자로 보았으며, 아버지의 역할을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로, 어머니의 역할을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로 구별하고 있다(Lamb, 1976).

사회학습 이론에서도 모방과 강화와 별이라는 기제로서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의 습득에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즉 강화와 별의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 그 빈도가 적은 대신 강도가 훨씬 크므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화와 별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관찰을 통한 모방 학습을 강조하였다(박성지, 2003).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이나 참여가 지난 세기 동안에 변화되어 온 과정은 Pleck(1984)연구에서 비교적 잘 설명되어 있다. 그는 지난 2세기 동안의 아버지 역할 변화를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도덕적 안내자, 가족부양자, 성역할 모델, 양육적인 보호자 등의 모습으로 아버지 역할이 변화되어 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는 단순화되고 그 기능은 축소되어 부모 역할과 책임의 변화, 취업모 증가에 따른 아동 양육 문제, 남녀 평등사상으로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다양화 등은 가정의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수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함인희(2003)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아버지 역할 수행은 아버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순(1991)은 현대의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요시 되는 역할의 네 측면, 즉 가족부양,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아동양육과 관련된 가사참여, 아동과 상호작용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가족 부양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심 요소로 남아 있다. 가족의 경제적 지원은 아동의 양육과 정신적 안정에 아버지가 기여하는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측면이다. 또한, 아동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후원은 어머니와 아동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동양육과 관련된 가사에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의 작업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아동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동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 양호, 교육, 놀이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숙현(1995)은 현대 가족에서 좋은 아버지란 자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며,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아버지를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Harris와 Morgan(1991)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에서 벗어나서 부모 역할의 모든 측면들을 다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아버지를 '새로운 아버지(new father)'라고 하였고, 이러한 아버지의 특징은 양육적(nurturing), 지지적(supportive), 동료적(companionate)이라고 하였다. Blankenhorn(1995)도 매일의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새로운 아버지상(new fatherhood)'이라고 하였다.

Canfield(1995)는 효과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자녀양육 역할, 남편의 역할, 부양자 역할, 양육자의 일관성, 자녀 이해도,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의 정신적 자세를 포함하여 7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김희숙(1996)도 Canfield(199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 중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는 정신적 자세를 제외하고 대신에 교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참가하여 7변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유아의 아버지들은 보호자와 생계담당자의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자, 반영적 경청자, 자녀 양육에의 참여자, 일관성 있는 자녀 양육자, 아내를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식 보유자 순으로 나타났다.

정현희와 최경순(1995)은 자녀의 성역할 습득과 발달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녀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역할보다 융통성 있는 양성적인 성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더 유익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의 긍정적인 성역할 지향과 자신의 성에 적합한 기본적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성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복희 외(1999)는 자녀양육에 있어 성에 의

해 제한되는 것은 단지 임신과 수유로 보고, 그 밖의 부모로서의 모든 역할을 공유하는 동등한 부모 노릇을 뜻하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자녀가 출산되기 전부터 아버지로서 어머니와 같이 준비하고, 분만에 참여하여 신생아 또는 영아의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현대적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적, 문화적으로 도구적 역할로 상징되나 현대적 아버지의 역할은 양성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버지 역할로서 도구적 역할 뿐만 아니라 많은 표현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아버지 역할은 전통적 역할에 비해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더불어 성역할의 변화는 현대의 젊은 남성들로 하여금 경제적 부양자라는 전통적인 도구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 내에서 정서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아동의 양육과 정서적 건강에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즉 아버지의 주된 역할은 도덕적 안내자, 가족 부양자, 성역할 모델, 양육적 보호자이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자녀에 대한 지식이 많고,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며,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등 아동양육과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요구하고 있다.

## 2)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과 영역

최근에 와서 아버지는 가사 일에서부터 어머니와 같이 준비하고, 분만 시 참여하며, 신생아 또는 영아의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양성적 아버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아버지 학교’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은 변화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2005년 9월부터 매월 6일을 ‘육아 데이’로 정하고 자녀를 둔 직원들이 정시 퇴근해서 부모들이 자녀 보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아버지가 직장일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녀양육에 아버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제도적 배려라 하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2,9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가족실태조사’결과,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자녀 돌봄 실태를 보면, 아버지가 주로 하는 자녀 보살피기 행동으로는 ‘자녀 목욕시키기 10.1%, 자녀와 놀아주기 7.7%, 병원 데려가기 4.3%, 놀이방 데려다 주기 3.6%, 숙제 봐주기 2.8%, 밥 먹이기 1.5%, 옷 입히기 1.4%, 교육·보육시설 알아보기 0.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들이 평일 저녁시간 활용을 보면, TV시청 56.7%, 휴식 10.8%, 회사잔무처리 4.9%, 운동·헬스 4.8%, 컴퓨터 게임 4.8%이었고, 가족과 대화는 5.0%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2004)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은 주로 어머니(42.5%)나 친구(23.2%)와 상의하고 있으며, 아버지(14.0%)나 선생님(0.6%)과 상의하는 학생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버지들 스스로가 어머니와 함께 이 사회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 및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민이나 걱정 등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기 다른 종류의 자극은 부모 중 한쪽에게서만 받는 자극에 비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하므로(Lamb, Pleck & Levine, 1985),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아버지만의 자녀양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박영순(1990)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는 자녀의 원만한 성격형성 및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델이 되며,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 주며, 자녀의 친구 및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 즉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원만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하며, 어머니의 사랑만 받은 아동들보다 양친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동들이 훨씬 더 원만한 성격이 된다. 이것은 젖먹이 때부터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부성애를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므로 아버지도 충분히 자녀들과 접촉을 많이 가져서 애정을 깊게 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지기 쉽지 않은 인간상 특히 이상적인 남성상을 보여주므로 아버지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델이 되며, 아버지는 깊고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면서도 엄중하게 지도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 준다. 또한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하는 인자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만이 인간을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친구로서의 아버지 및 어머니로 하여금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행복한 어머니만이 행복한 자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건강을 돕는 일,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일 등은 자녀 교육상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중요성은 Nicholi(1985)가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의 양을 산소량에 비유한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시간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산소량에 비유할 수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보다 존재하는 산소의 양이 적으면 사람들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듯이,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의 산소량과 같이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시간도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Biller(1973)는 많은 시간을 집에 있으면서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는 방어적이며 거부적인 성격을 가지며, Kelly(1981)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경우 아버지-자녀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자녀의 감정과 욕구를 더욱 잘 이해한다고 하였다(김혜현, 1992, 재인용).

정현희와 최경순(1995)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성역할 발달 및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정서반응에는 아버지의 가사참여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성수현(1996)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성취동기와 상관성이 있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영역 중 여가활동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조주은(200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참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양미숙(2005)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특히 여가활동과 생활지도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홍영희(2006)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버지의 여가활동참여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Parke(1981)는 아버지가 아동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때 어머니-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이정순(2003)도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동료의식, 연대감을 갖게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대감은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어머니가 육아불안을 느끼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자녀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단순히 자녀를 위해서 혹은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아버지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자신의 성숙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서혜영(1999)은 부모 역할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부모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계발하고 인성을 재구조화 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만족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역할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Russell, 1982; Sagi, 1982),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아버지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Ishii-Kuntz, 1994)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아버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현숙(199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① 건강관리 및 위생에 관한 역할 ② 경제적 능력을 갖고 물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 ③ 가정의 화목과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④ 사회전통이나 가치관·생활철학을 담당하는 역할 ⑤ 자녀의 학습과 지적능력을 계발하는 역할 ⑥ 자녀에게 애정 및 관심을 갖는 역할 ⑦ 기본 훈육에 관한 역할 등으로 보았다.

최경순(199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아동양육에 함께 보내는 물리적·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의 양적 정도를 말하며, 그 하위 영역으로

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를 포함하였고, 김혜연(1992)과 성수현(1996)의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황정혜(1992)와 박성지(2003)는 하위영역으로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포함하였다.

Lamb(1981)은 아버지 참여에 아버지가 경제능력을 갖고 통솔자로 어머니와 협력하여 가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 자녀의 지적·사회적 능력을 계발하는 역할과 아동 돌보기, 아동과 놀이 및 운동을 하거나 집안 일·식사에절을 가르치는 등 가정에서의 활동, 사회생활에 대한 직·간접적 접촉을 가르치고 공동생활에서의 아동과의 활동, 그리고 책을 읽어주거나 아동의 신상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신체적 애정표시 및 훈육하는 역할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Barnett과 Baruch(1986)의 아버지 양육 참여를 살펴보면, 아동들의 모임(생일·소풍·운동회)이나 병원·유치원·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데려오기, 자녀의 선생님을 방문하거나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기, 아동방을 청소하거나 잠자리를 보살펴주기, 아동의 옷이나 필요한 물건 사다주기, 아동과 함께 외출하기, 아동의 건강 보살피기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영역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최경순(1992)이 개발, 사용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란 아동양육에 함께 보내는 물리적·신체적 상호관계에 대한 참여행동의 양적 정도를 말하며, 그 하위영역으로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가 포함된다. 첫째, 여가활동은 아동과 함께 나들이, 등산, 외식, 동·식물원, 유원지, 놀이터, 영화관 등에 함께 참가하여 즐기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생활지도는 사회생활을 해가는 데 필요한 기본예절지도, 언행교정, 일상생활습관형성 등을 위해 조력하는 일을 말한다. 셋째, 가사활동은 식사준비, 설거지, 침구정돈, 집안청소, 장보기, 가옥수리, 빨래하기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넷째, 학습지도는 장난감, 책, 교과목에 대해 학기 중 배우고 있는 내용 등을 아버지가 직접 지도하거나 학용품, 학교 준비물 챙기기에 조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아동의 사회성

사회성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점차 폭넓고 깊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 즉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으로 본 절에서는 사회성의 개념, 아동의 사회성 특성과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사회성의 개념

교육학 사전에서의 사회성(sociability)이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성질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사람은 곧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말이다. 즉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타인과 접촉하려는 사회적 욕구 내지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을 사회성이라 한다(교육학사전 편찬위원회, 1988).

이러한 사회적 욕구 및 성향은 유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츰 인간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해서 타인과 집단에 대하여 상호 의존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립하며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인간은 그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회화 과정은 사회 안에서 개인이 사회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여 나가고 그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서승덕, 2002). 즉,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을 얻고 사회성을 배워나간다.

사회성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민영순(1994)은 사회성(sociability)이란 사회관계의 의식을 말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로서 다른 사람들과 사귄 수 있는 개체의 능력 또는 개체의 사회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이며, 이러한 사회성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며 발달한다고 하였다. 조성자와 손은주(1998)는 사회성이란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안정을 얻기 위하여 적응해 나가는 능력으로 사회성이 높다는 것은 타인과 잘 어울리며 협동심이 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서승덕(2002)은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타인과 접촉하려는 사회적 욕구 내지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을 사회성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사회성은 인간이 타인과 더불어 적절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대인관계의 원만성 및 적응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원만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아동의 사회성 특성과 구성요소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의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사회성 함양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아동은 한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서 인정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사회화 과정이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며, 한 개인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성을 얻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된다.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조화로울 때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지장이 초래되며, 사회적 부적응 행동 및 심리적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송요현, 2006).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학업성취 면에 지나친 관심으로 아동들은 학원 순례하느라 친구들과도 잘 놀지 못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인터넷을 하는 등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4)이 초등학생들의 과외 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76.0%가 학교 공부 이외에 개인 과외, 그룹 과외, 학원 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여가활동 실태를 보면, 주로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이 36.0%,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보기 및 음악 듣기 32.9%,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 23.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으며,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사회성 함양이 매우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Freud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잠복기로서 성적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고 동성의 아동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아동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고 교사나 이웃, 또래 등과 관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소속집단과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동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자기중심적 개체 의식이 크게 작용하며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집단에서의 따돌림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리고 Erickson(1959)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 아동 자아 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며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히 작업에 임하는 과정에서 근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때 Erickson은 아동을 격려하고 재능을 발견하여 북돋아 주는 교사나 부모의 태도를 강조하였다(황정희, 2003, 재인용). 또한 Cooley(1964)의 거울자아 이론에 의하면 자아는 주위 사람들이라는 거울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어렸을 때는 부모라는 거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란 거울, 일반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인물이나 전문가라는 거울이 인간의 자아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제봉, 1996, 재인용).

이와 같이 초등학교 시기는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커지면서 집단에서의 따돌림을 두려워하고 근면성을 획득하는 시기이며 자신이 주위 사람들이라는 거울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식(1983)에 의하면 이러한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징으로, 교우 집단에 대하여 민감성을 보이고 자기중심성에서 사회화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징을 가지며, 지적 활동 시기로서 학업에 있어서 칭찬과 질책이 따르게 된다. 또한 집단의 지도자에게 자발적 동조 현상을 보이고, 나이 어린 아동이나 동물, 여자 아동을 괴롭히며, 학업이나 집단 활동에서 경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점차로 감정을 감추는 법이라든가 가장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를 공격하는 인물을 도피하고 성질에 맞는 인물을 찾는 기술을 배워간다.

위와 같이 아동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의 욕구를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며 자신을 지키고 키워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어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성을 지니며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다.

사회성의 구성요소로서 서승덕(2002)은 아동의 사회성을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아동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 책임감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생활에서 스스로 정리 정돈하는 습관, 맡은 일 등 일상의 실천 생활에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셋째, 아동들에게 협동성을 통하여 상호간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인격도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심어주어야 한다. 넷째, 근면성에 있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성실하게 아동자신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도록 해 주어야 된다.

또한 황정희(2003)는 사회성의 하위 내용으로 신뢰성, 자율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봉사성, 준법성 등 8개로 보았으며, 김송자(2005)는 근면성,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자주성 등으로 5개의 하위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이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점차 폭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 즉 타인과 더불어 공동 생활을 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며, 하위개념으로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을 포함한다.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아동들의 능력에 관한 영역으로, 아동들의 자신감과 감정 및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며, 책임감은 자기가 맡은 일을 알고 성실히 수행하며 끝마무리를 잘하고,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성은 집단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가며 함께 일하고, 집단의 결정에 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을 말하며, 근면성은 부지런하고 어려운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번 계획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실천해 나가는 감정이나 의지를 말한다.



###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시기는 자녀가 점차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행동 및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회화의 중요한 시기로 아동들의 신체적인 성장은 물론 지적 능력의 발달과 병행하여 사회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가정은 인간이 탄생하여 최초로 맞는 사회로서 아동기의 행동 기반이 확립되어 가는 곳이며 자란 후 개인생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다. 또한 가족은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족관계는 한 인간이 최초로 맞는 인간관계이며, 가족은 사회의 기본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부모는 아동의 대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가족 성원이며, 아동의 생리적 욕구를 채워주고 절대적인 보호자 노릇을 한다. 따라서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원간에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때 아동의 사회 대행자로서 건전한 사회성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다(손순미, 2006).

특히 아버지는 사회와 가정을 연결시켜 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통해 사회활동의 모델이 되는 등 자녀들에겐 중요한 동일시 대상이 된다. 아버지가 없거나 또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 가정환경을 부성 실조 환경이라고 하는데, 가정에 따라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과 지도에 무관심하여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성 실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성 실조 현상은 아동들의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1996). 이정숙(1979)도 ‘부친 부재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성장과정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양육과 지도가 적합하지 못하면 부성결핍에 의해서 초래되는 사회적 행동상의 발달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했다(조성자·손은주, 1998, 재인용). 그러므로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적절한 통제와 방향제시가 요구되며 아버지의 일관성 있는 통제가 아동들의 자제력과 판단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미성숙한 자녀의 행동을 꾸짖을 수도 없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격려해 주지도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들은 점차 행동의 자제력과 자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경희 외(1994)에 의하면 아버지가 따뜻하고 민감하게 행동할 때 아버지는 유아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유아의 안정된 관계는 다른 사람과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을 길러준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따뜻한 관계는 아들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아버지가 양육적일 때 여아는 이성관계에 적응하기 쉽고 행복감을 느끼지만, 소원한 관계일 때는 부적응을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않고 동성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병리적인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김정신(1999)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며 자율성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자녀양육에 참여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변수정(2003)은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 송요현(2006)은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므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즉 아동의 자녀교육, 자녀부양, 자녀양육의 일관성, 자녀를 위한 부부협력, 자녀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Hetherington(1972)은 부모와 원만한 관계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참여도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사회성도 높고 대인 관계도 원만한 반면 부모가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참여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사회성이 낮고 성격적으로도 부적응을 보인다고 했다(조성자·손은주, 1998, 재인용). 또한, McDonald와 Parke(1984)는 신체적 놀이를 많이 해 주는 아버지를 가진 아동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도 높고 아버지가 언어적 자극을 제공할 때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안정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상호작용의 형태나 내용면에서 어머니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최경순, 1992; 이경희, 1993; 이주리, 1994). 즉 어머니는 아동에게 젖을 먹이고 시중을 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 아버지는 아동과 놀아주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의 놀이는 특히 남아들에게 중요해서 다른 아동들과 지내는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e & Tinsley, 1987). 더구나 Hammer와 Turner(1996)에 의하면, 아버지는 레슬링이나 술래잡기 등과 같이 육체적이며 자

극적인 방법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덜 자극적이고 언어 중심적이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깎꿍 놀이와 같은 전통놀이를 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경순(1992)에 의하면 아버지의 참여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으므로 아버지는 자녀의 놀이 및 학습 지도와 습관형성 등에 다양하게 관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어 다양한 자극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자녀와 관계된 가사활동에 잘 참여하고, 자녀의 인지적 성취를 위한 교육적 활동에 조력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아버지의 자녀는 안정적인 사회·정서 발달적 특성으로서 독립적이고 내적통제력이 강하며, 동료와 상호작용을 활발히 시도하고 성취동기 및 호기심이 높으며,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과민하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특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정서적 갈등상황도 잘 극복해 내는 인지적 전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웅·이인수, 1998; 정경숙, 2000).

박성지(2003)는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 중에서도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가 아동의 사회성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고, 한은규(2003)도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영역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현정(2004)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와의 외출이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 여가를 즐기고, 자녀의 기본예절지도, 일상생활, 습관형성 등과 같은 생활지도에 참여할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 자기만족 등을 형성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기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게 됨으로써 원만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양미숙(2005)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들은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동의 사회화 모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라는 상황은 아동에게 사회적 경험을 제한하며 아버지 역할의 결손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견해이다. 즉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와 자녀에게 심리적인 긴장을 초래하여 가족 관계가 원만치 않으며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가정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녀와 접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은 근면성이 길러지고, 근면성이 발달한 아동들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행동하며,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등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과는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수록 아동의 사회성도 높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 중 생활지도와 여가활동영역에서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절차, 자료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816명(남학생 423명, 여학생 393명)이다. 연구대상자의 가족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자의 가족 환경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23	51.8
	여	393	48.2
출생순서	첫째	380	46.6
	중간	101	12.4
	막내	293	35.9
	외동이	42	5.1
아버지의 연령	30-39세	122	15.0
	40-49세	644	78.9
	50세 이상	50	6.1
아버지의 최종학력	초졸	3	0.4
	중졸	20	2.5
	고졸	203	24.9
	대졸	486	59.5
	대학원졸	104	12.7
어머니 직업	있다	580	71.1
	없다	236	28.9
전체	816	100.0	

<표Ⅲ-1>에서 연구 대상자로는 남학생(51.8%)이 여학생(48.2%)보다 많고, 출생순서에 있어서는 첫째 46.6%, 중간 12.4%, 막내 35.9%, 외동이 5.1%으로 첫째가 많다. 아버지의 연령은 30-39세가 15.0%, 40-49세가 78.9%, 50세 이상이 6.1%로 40대가 많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0.4%, 중학교 졸업 2.5%, 고등학교 졸업 24.9%, 대학교 졸업 59.5%, 대학원 졸업이 12.7%로 대학교 졸업이 많다. 어머니의 직업은 있다(71.1%)가 없다(28.9%)보다 많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연구대상자의 가족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측정도구는 최경순(1992)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참여도를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영역으로 분류하여 여가활동에 9문항, 생활지도 8문항, 가사활동 7문항, 학습지도 6문항, 모두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는 주어진 문항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참여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원 검사지의 신뢰도는 .91이었으나 본 연구의 실행결과 나타난 아버지 양육참여도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93 이며 각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Ⅲ-2>와 같다.

<표Ⅲ-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계수
여가활동	1, 5, 9, 11, 12, 17, 19, 24, 25	9	.84
생활지도	2, 4, 6, 10, 15, 16, 22, 23	8	.86
가사활동	3, 7, 14, 21, 28, 29, 30	7	.84
학습지도	8, 13, 18, 20, 26, 27	6	.74
계		30	.93

## 2) 사회성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성 측정도구는 서승덕(2002)이 개발한 문항 중 중복되는 3문항을 제하고 수정 보완한 손순미(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성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14문항, 책임감 10문항, 협동성 10문항, 근면성 9문항, 모두 4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는 주어진 문항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주어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고 낮을수록 사회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원 검사지의 신뢰도는 .80이었으나 본 연구의 실행결과 나타난 사회성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8이며 각 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계수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사회성 검사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계수
대인관계	1, 5, 6, 10, 11, 15, 16, 20*, 24, 28, 29, 33, 34, 38*	14	.74
책임감	2*, 7*, 12, 17*, 21, 25, 30, 35, 39, 42	10	.64
협동성	3, 8, 13, 18, 22, 26, 31, 36, 40, 43	10	.71
근면성	4, 9, 14, 19, 23, 27*, 32, 37, 41	9	.72
계		43	.88

\*는 역산문항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본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06년 10월 31일에 제주시내 H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목적은 검사의 내용 이해와 질문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가의 여부, 의도한 바대로 질문에 반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실시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검사지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미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본 조사

본 조사의 실시는 2006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제주시내 초등학교 6학년 아동 816명(남학생 423명, 여학생 39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담당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 및 검사 실시 지침을 설명하였고 설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10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수는 988부였으나, 항목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부모가 모두 부재하거나 편모, 편부인 아동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16부만을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dow 1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처리를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가족 환경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아버지 양육참여도 척도와 아동의 사회성 검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제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를 통한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IV-1>~<표IV-4>와 같다.

#### 1)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가설 1-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출생순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표IV-1>과 같다.

<표IV-1>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구분	출생순서	n	M	SD	F
양육참여도	첫째	380	3.20	0.72	3.091*
	중간	101	3.10	0.73	
	막내	293	3.03	0.72	
	외동이	42	3.09	0.62	
여가활동	첫째	380	3.15	0.85	4.157**
	중간	101	3.05	0.83	
	막내	293	2.93	0.84	
	외동이	42	3.01	0.78	
생활지도	첫째	380	3.40	0.84	2.797*
	중간	101	3.28	0.84	
	막내	293	3.22	0.89	
	외동이	42	3.37	0.82	

가사활동	첫째	380	3.36	0.96	0.351
	중간	101	3.36	0.95	
	막내	293	3.30	0.95	
	외동아	42	3.25	1.04	
학습지도	첫째	380	2.96	0.80	3.498*
	중간	101	2.81	0.82	
	막내	293	2.76	0.85	
	외동아	42	2.89	0.68	

\* :  $p < .05$  , \*\* :  $p < .01$

<표IV-1>에서 출생순서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결과를 보면, 출생순서가 첫째인 경우 평균은 3.20, 중간인 경우 평균은 3.10, 외동아인 경우 평균은 3.09, 막내인 경우 평균은 3.0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091$ ,  $p < .05$ ). 즉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으며, 특히 출생순서가 첫째인 경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서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에 따른 결과를 보면, 여가활동에서는 출생순서가 첫째인 경우( $M=3.15$ )가 높게 나타났고, 막내인 경우( $M=2.93$ )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4.157$ ,  $p < .01$ ). 생활지도에서도 출생순서가 첫째인 경우( $M=3.40$ )가 높게 나타났고, 외동아( $M=3.37$ ), 중간( $M=3.28$ ), 막내( $M=3.2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2.797$ ,  $p < .05$ ). 가사활동에서는 출생순서가 첫째와 중간( $M=3.36$ ), 막내( $M=3.30$ ), 외동아( $M=3.25$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학습지도에서는 출생순서가 첫째( $M=2.96$ ), 외동아( $M=2.89$ ), 중간( $M=2.81$ ), 막내( $M=2.7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3.498$ ,  $p < .05$ ).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 참여에서 첫째와 외동아일 경우가 아버지의 참여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경순(1991), 자녀가 첫째이거나 외동아일 때 아버지가 역할수행을 더 잘했다고 한 윤서영과 정옥분(1999), 형제 중 첫째인 아동들에 대한 아버지의 여가활동 양육참여가 둘째 아동들보다 높았다는 어옥자(2003)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는 첫째나 외동아인 경우에 아버지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양육참여도

가설 1-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표IV-2>와 같다.

<표IV-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구분	연령	n	M	SD	F
양육참여도	30-39세	122	3.04	0.75	7.416**
	40-49세	644	3.16	0.71	
	50세 이상	50	2.78	0.74	
여가활동	30-39세	122	3.06	0.89	8.925***
	40-49세	644	3.09	0.82	
	50세 이상	50	2.57	0.83	
생활지도	30-39세	122	3.16	0.90	4.593*
	40-49세	644	3.37	0.84	
	50세 이상	50	3.11	0.95	
가사활동	30-39세	122	3.20	0.92	6.924**
	40-49세	644	3.39	0.95	
	50세 이상	50	2.93	1.05	
학습지도	30-39세	122	2.82	0.82	2.100
	40-49세	644	2.89	0.82	
	50세 이상	50	2.66	0.86	

\* :  $p < .05$  , \*\* :  $p < .01$  , \*\*\* :  $p < .001$

<표IV-2>에서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30대의 경우 평균은 3.04, 40대의 경우 평균은 3.16, 50대 이상은 평균 2.78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7.416$ ,  $p < .01$ ). 즉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4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에 따른 결과를 보면, 여가활동에서 40대( $M=3.09$ ), 30대( $M=3.06$ ), 50대( $M=2.57$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8.925$ ,  $p < .001$ ). 생활지도에서도 40대( $M=3.37$ ), 30대( $M=3.16$ ), 50대( $M=3.11$ )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F=4.593$ ,  $p < .05$ ), 40대의 평균이 높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활동에서도 40대(M=3.39), 30대(M=3.20), 50대(M=2.93)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6.924, p<.01). 학습지도에서도 40대(M=2.89), 30대(M=2.82), 50대(M=2.66)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자녀사랑을 더 많이 표현한다는 윤서영과 정옥분(1999), 홍영희(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서는 40대, 30대의 아버지가 50대의 아버지보다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 내지는 해당 자녀의 출생 순위와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즉,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은 부권(父權)을 강조하며 기성세대들은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집안일 내지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으나 이러한 가치관은 아버지의 연령이 하향화 될수록 줄어들며, 신세대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공동 참여를 당연한 시대적 결과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그리고 50대 아버지들의 자녀가 대부분 차자녀(次子女)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장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차자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줄어들거나 타성화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3)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양육참여도

가설 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학력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표IV-3>과 같다.

<표IV-3>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구분	학력	n	M	SD	F
양육참여도	초졸	3	2.99	1.09	7.075***
	중졸	20	2.85	0.73	
	고졸	203	2.92	0.70	
	대졸	486	3.18	0.71	
	대학원졸	104	3.29	0.72	

여가활동	초졸	3	2.81	0.94	8.908***
	중졸	20	2.71	0.73	
	고졸	203	2.79	0.82	
	대졸	486	3.13	0.84	
	대학원졸	104	3.26	0.81	
생활지도	초졸	3	2.58	0.92	6.351***
	중졸	20	3.09	1.00	
	고졸	203	3.12	0.81	
	대졸	486	3.36	0.85	
	대학원졸	104	3.57	0.86	
가사활동	초졸	3	3.86	1.61	1.487
	중졸	20	3.24	0.84	
	고졸	203	3.21	0.95	
	대졸	486	3.38	0.95	
	대학원졸	104	3.39	1.02	
학습지도	초졸	3	2.67	1.15	4.971**
	중졸	20	2.53	0.89	
	고졸	203	2.69	0.79	
	대졸	486	2.92	0.81	
	대학원졸	104	3.04	0.83	

\*\* :  $p < .01$  , \*\*\* :  $p < .001$

<표IV-3>에서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졸업(M=3.29), 대학교 졸업(M=3.18), 고등학교 졸업(M=2.92), 초등학교 졸업(M=2.99), 중학교 졸업(M=2.85)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F=7.075$ ,  $p < .001$ ),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여가활동에서의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졸업(M=3.26), 대학교 졸업(M=3.13), 초등학교 졸업(M=2.81), 고등학교 졸업(M=2.79), 중학교 졸업(M=2.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8.908$ ,  $p < .001$ ). 생활지도에서도 대학원 졸업(M=3.57), 대학교 졸업(M=3.36), 고등학교 졸업(M=3.12), 중학교 졸업(M=3.09), 초등학교 졸업(M=2.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F=6.351$ ,  $p < .001$ ) 학력이 높아질수록 생활지도 영역에서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지도에서도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졸업(M=3.04), 대학교 졸업(M=2.92), 고등학교 졸업(M=2.69), 초등학교 졸업(M=2.67), 중학교 졸업(M=2.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4.971, p<.01$ ). 그러나 가사활동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M=3.86$ ), 대학원 졸업( $M=3.39$ ), 대학교 졸업( $M=3.38$ ), 중학교 졸업( $M=3.24$ ), 고등학교 졸업( $M=3.21$ )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참여나 역할수행도가 높다는 이현숙(1991), 김정신(1999), 송요현(2006), 홍영희(2006) 등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게 애정표현 및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 아내와 잘 협력하며, 자녀에 대해 잘 파악하여 자녀부양역할을 더 잘한다는 윤서영과 정옥분(199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을 받음으로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관습에서 가정 내의 남녀 성차별이 없어지는 결과와 아울러 아동의 성장발달에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여겨진다.

#### 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가설 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직업유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표IV-4>와 같다.

<표IV-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구분	어머니 직업	n	M	SD	t
양육참여도	유	580	3.13	0.72	0.761
	무	236	3.09	0.73	
여가활동	유	580	3.03	0.83	-1.302
	무	236	3.11	0.88	
생활지도	유	580	3.30	0.85	-0.761
	무	236	3.35	0.89	
가사활동	유	580	3.43	0.94	4.657***
	무	236	3.09	0.95	
학습지도	유	580	2.86	0.82	-0.171
	무	236	2.87	0.83	

\*\*\* :  $p<.001$

<표IV-4>에서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전체적으로 직업이 있는 어머니(M=3.13)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M=3.09)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참여도 하위영역 중 가사활동에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M=3.43)인 경우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M=3.09)의 경우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4.657, p<.001$ ). 그러나 다른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하위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참여도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한 성수현(199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차이가 없다는 이현숙(1991), 김혜현(1992), 최윤희(1998)의 연구결과와 같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전체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사활동 면에서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는 최경순(1992), 홍영희(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식사준비 및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활동 면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 중 가사활동 면에서의 양육참여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근래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어머니의 사회참여와 취업 및 아버지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이해가 점차 높아져서 아버지들도 가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2.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사회성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IV-5>~<표IV-8>과 같다.



1)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가설 2-1.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출생순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은 <표IV-5>와 같다.

<표IV-5> 아동의 출생순서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구분	출생순서	n	M	SD	F
사회성 전체	첫째	380	3.40	0.41	3.559*
	중간	101	3.35	0.42	
	막내	293	3.29	0.44	
	외동이	42	3.35	0.42	
대인관계	첫째	380	3.67	0.48	0.367
	중간	101	3.64	0.48	
	막내	293	3.63	0.48	
	외동이	42	3.67	0.47	
책임감	첫째	380	3.28	0.51	5.361**
	중간	101	3.27	0.54	
	막내	293	3.12	0.54	
	외동이	42	3.21	0.55	
협동성	첫째	380	3.32	0.53	2.830*
	중간	101	3.25	0.53	
	막내	293	3.20	0.56	
	외동이	42	3.21	0.52	
근면성	첫째	380	3.19	0.55	3.928*
	중간	101	3.12	0.57	
	막내	293	3.04	0.61	
	외동이	42	3.15	0.46	

\* : p<.05 , \*\* : p<.01

<표IV-5>에서 출생순서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출생순서가 첫째(M=3.40)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동이(M=3.35), 중간(M=3.35), 막내(M=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559, p<.05)가 나타나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사회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성 하위영역별로 보면, 책임감에서 출생순서가 첫째(M=3.28), 중간(M=3.27),

외동이(M=3.21), 막내(M=3.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5.361, p<.01). 협동성에서도 첫째(M=3.32), 중간(M=3.25), 외동이(M=3.21), 막내(M=3.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2.830, p<.05). 근면성에서는 첫째(M=3.19), 외동이(M=3.15), 중간(M=3.12), 막내(M=3.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928, p<.05). 그러나 대인관계에서는 첫째(M=3.67), 외동이(M=3.67), 중간(M=3.64), 막내(M=3.6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이거나 외동이인 경우에 사회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다는 박성지(2003)의 연구, 만이일수록 전체 사회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한조희(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출생순서가 첫째인 아동들이 기대와 관심의 대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동생들을 돌봄에 따라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2)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가설 2-2.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은 <표IV-6>과 같다.

<표IV-6>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구분	연령	n	M	SD	F
사회성 전체	30-39세	122	3.31	0.39	0.312
	40-49세	644	3.36	0.43	
	50세 이상	50	3.30	0.44	
대인관계	30-39세	122	3.63	0.47	0.590
	40-49세	644	3.66	0.48	
	50세 이상	50	3.59	0.48	
책임감	30-39세	122	3.15	0.51	0.173
	40-49세	644	3.24	0.54	
	50세 이상	50	3.15	0.50	

협동성	30-39세	122	3.20	0.49	0.340
	40-49세	644	3.28	0.55	
	50세 이상	50	3.24	0.57	
근면성	30-39세	122	3.09	0.53	0.710
	40-49세	644	3.13	0.58	
	50세 이상	50	3.09	0.70	

<표IV-6>에서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수준은 아버지가 40-49세 (M=3.36)인 경우가 높고, 30-39세(M=3.31), 50세 이상(M=3.30)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하위영역에서도 아버지 연령에 따른 사회성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가설 2-3.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학력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은 <표IV-7>과 같다.

<표IV-7>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구분	학력	n	M	SD	F
사회성 전체	초졸	3	3.22	0.19	4.610**
	중졸	20	3.24	0.41	
	고졸	203	3.26	0.43	
	대졸	486	3.37	0.42	
	대학원졸	104	3.47	0.43	
대인관계	초졸	3	3.33	0.30	4.119**
	중졸	20	3.66	0.46	
	고졸	203	3.55	0.48	
	대졸	486	3.67	0.47	
	대학원졸	104	3.77	0.51	
책임감	초졸	3	3.13	0.40	1.564
	중졸	20	3.06	0.49	
	고졸	203	3.16	0.51	
	대졸	486	3.24	0.54	
	대학원졸	104	3.28	0.52	

협동성	초졸	3	3.13	0.81	2.348
	중졸	20	3.11	0.55	
	고졸	203	3.20	0.53	
	대졸	486	3.28	0.53	
	대학원졸	104	3.37	0.58	
근면성	초졸	3	3.22	0.48	5.712***
	중졸	20	2.93	0.60	
	고졸	203	3.00	0.58	
	대졸	486	3.14	0.56	
	대학원졸	104	3.31	0.60	

\*\* :  $p < .01$  , \*\*\* :  $p < .001$

<표IV-7>에서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결과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졸업( $M=3.47$ )인 경우가 아동의 사회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M=3.37$ ), 고등학교 졸업( $M=3.26$ ), 중학교 졸업( $M=3.24$ ), 초등학교 졸업( $M=3.2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 $F=4.610$ ,  $p < .01$ ),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하위영역에 따른 결과를 보면, 아동의 사회성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F=4.119$ ,  $p < .01$ )와 근면성( $F=5.712$ ,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대인관계 및 근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책임감과 협동성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다고 한 임귀성(1999), 박미자(2001), 황정희(2003), 한조희(2005), 송요현(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가설 2-4. 아동의 사회성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은 <표IV-8>과 같다.

**<표IV-8> 어머니 직업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구분	어머니 직업	n	M	SD	t
사회성 전체	유	580	3.35	0.43	-0.301
	무	236	3.36	0.43	
대인관계	유	580	3.66	0.48	0.466
	무	236	3.64	0.47	
책임감	유	580	3.21	0.54	-0.662
	무	236	3.23	0.52	
협동성	유	580	3.26	0.54	-0.035
	무	236	3.27	0.55	
근면성	유	580	3.11	0.57	-0.957
	무	236	3.15	0.59	

<표IV-8>에서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은 직업이 없는 어머니(M=3.36)가 직업이 있는 어머니(M=3.3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 아동의 사회성에 차이가 없다는 신영희(1996), 윤서영과 정옥분(1999), 임귀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직업이 없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어머니보다 아동의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박성지(2003), 황정희(200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

가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는 <표IV-9>와 같다.

<표IV-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의 상관분석

구분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	양육참여도	사회성
여가활동	-									
생활지도	.691***	-								
가사활동	.480***	.456***	-							
학습지도	.666***	.724***	.548***	-						
대인관계	.350***	.394***	.282***	.322***	-					
책임감	.305***	.340***	.233***	.326***	.385***	-				
협동성	.372***	.388***	.277***	.330***	.647***	.573***	-			
근면성	.374***	.401***	.296***	.381***	.485***	.638***	.590***	-		
양육참여도	.879***	.848***	.743***	.850***	.402***	.351***	.410***	.432***	-	
사회성	.430***	.469***	.335***	.416***	.802***	.777***	.861***	.816***	.490***	-

\*\*\*: p<.001

<표IV-9>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여가활동과 대인관계( $r=.350, p<.001$ ), 책임감( $r=.305, p<.001$ ), 협동성( $r=.372, p<.001$ ), 근면성( $r=.374, p<.001$ )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인 생활지도와 대인관계( $r=.394, p<.001$ ), 책임감( $r=.340, p<.001$ ), 협동성( $r=.388, p<.001$ ), 근면성( $r=.401, p<.001$ )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인 가사활동과 대인관계( $r=.282, p<.001$ ), 책임감( $r=.233, p<.001$ ), 협동성( $r=.277, p<.001$ ), 근면성( $r=.296, p<.001$ )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하위요인인 학습지도와 대인관계( $r=.322, p<.001$ ), 책임감( $r=.326, p<.001$ ), 협동성( $r=.330, p<.001$ ), 근면성( $r=.381, p<.001$ )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대인관계( $r=.402, p<.001$ ), 책임감( $r=.351, p<.001$ ), 협동성( $r=.410, p<.001$ ), 근면성( $r=.432, p<.001$ )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아

동의 사회성과 여가활동( $r=.430, p<.001$ ), 생활지도( $r=.469, p<.001$ ), 가사활동( $r=.335, p<.001$ ), 학습지도( $r=.416, p<.001$ )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에 상관이 있다는 최경순(1992),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참여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성자와 손은주(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김광웅과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교사가 평가한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어머니가 평가한 사회적 능력, 그리고 관찰자가 평가한 사회·정서적 문제해결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정경숙(2000),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박성지(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협조성이 높았다는 황순영(2004)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자녀와 관계된 가사활동을 하고, 학습지도에 아버지가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풍부히 해주어 아동은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며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갈등상황도 잘 극복해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들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어느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사회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표IV-10>과 같다.

**<표IV-10>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표준화 $\beta$	$T$	$F$	$R^2$
사회성	여가활동	0.077	0.151	3.352**	68.671***	0.253
	생활지도	0.136	0.273	5.658***		
	가사활동	0.047	0.105	2.841**		
	학습지도	0.031	0.060	1.231		

\*\* :  $p < .01$  , \*\*\* :  $p < .001$

<표IV-10>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077$ ,  $t=3.352$ ,  $p < .01$ ), 생활지도( $\beta=0.136$ ,  $t=5.658$ ,  $p < .001$ ), 가사활동( $\beta=0.047$ ,  $t=2.841$ ,  $p < .01$ )이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 $\beta=0.136$ ,  $t=5.658$ ,  $p < .001$ )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표IV-11>과 같다.

**<표IV-11>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도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표준화 $\beta$	$T$	$F$	$R^2$
대인관계	여가활동	0.067	0.119	2.502*	42.939***	0.175
	생활지도	0.151	0.272	5.366***		
	가사활동	0.054	0.108	2.792**		
	학습지도	-0.008	-0.013	-0.259		



책임감	여가활동	0.051	0.081	1.668	31.477***	0.134
	생활지도	0.109	0.177	3.410**		
	가사활동	0.027	0.049	1.230		
	학습지도	0.076	0.117	2.225*		
협동성	여가활동	0.109	0.169	3.572***	43.690***	0.177
	생활지도	0.144	0.228	4.513***		
	가사활동	0.051	0.090	2.334*		
	학습지도	0.002	0.002	0.045		
근면성	여가활동	0.085	0.124	2.640**	48.339***	0.193
	생활지도	0.132	0.197	3.927***		
	가사활동	0.053	0.088	2.283*		
	학습지도	0.076	0.108	2.132*		

\* :  $p < .05$  , \*\* :  $p < .01$  , \*\*\* :  $p < .001$

<표IV-11>에서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를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067$ ,  $t=2.502$ ,  $p<.05$ ), 생활지도( $\beta=0.151$ ,  $t=5.366$ ,  $p<.001$ ), 가사활동( $\beta=0.054$ ,  $t=2.792$ ,  $p<.01$ )이 아동의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 $\beta=0.151$ ,  $t=5.366$ ,  $p<.001$ )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책임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beta=0.109$ ,  $t=3.410$ ,  $p<.01$ )와 학습지도( $\beta=0.076$ ,  $t=2.225$ ,  $p<.05$ )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인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책임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

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109$ ,  $t=3.572$ ,  $p<.001$ ), 생활지도( $\beta=0.144$ ,  $t=4.513$ ,  $p<.001$ ), 가사활동( $\beta=0.051$ ,  $t=2.334$ ,  $p<.05$ )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 중 협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085$ ,  $t=2.640$ ,  $p<.01$ ), 생활지도( $\beta=0.132$ ,  $t=3.927$ ,  $p<.001$ ), 가사활동( $\beta=0.053$ ,  $t=2.283$ ,  $p<.05$ ), 학습지도( $\beta=0.076$ ,  $t=2.132$ ,  $p<.05$ )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어느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생활지도 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와 협동성에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책임감에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근면성에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 중 생활지도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 협동성, 책임감, 근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참여도, 특히 아버지의 여가활동과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다는 최경순(1992), 아버지의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성지(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 변인 중 생활지도 참여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변인 중 사교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이지희(200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중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 영역이 과거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도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교육적 효과로서 생활지도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즉 아버지가 자녀의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자상하게 일러주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아동의 출생순서, 아버지 연령, 아버지 학력수준,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들(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 중 어느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가족 환경적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출생순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학력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직업유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사회성은 가족 환경적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아동의 사회성은 아동의 출생순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학력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아동의 사회성은 어머니의 직업유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들은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816명(남학생 423명, 여학생 3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0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회수된 설문지 수는 988부였으나, 항목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부모가 모두 부재하거나 편모, 편부인 아동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16부를 분석하였다.

검사지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측정도구로 최경순(1992)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성 측정도구는 손순미(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43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분석은 SPSS(window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가족 환경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가족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제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순서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출생순서가 첫째(M=3.20)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막내(M=3.03)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F=3.091,  $p<.05$ ). 즉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40대(M=3.16)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M=2.7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7.416,  $p<.01$ ).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이상(M=3.29)과 대학교 졸업(M=3.18)인 아동이 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M=2.92), 중학교 졸업(M=2.85)인 아동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7.075,  $p<.001$ ). 그 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 중 가사활동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있을 경우(M=3.43)가 없는 경우(M=3.09)보다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t=4.657$ ,  $p<.001$ ).

둘째, 출생순서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출생순서가 첫째(M=3.40)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동이(M=3.35), 중간(M=3.35), 막내(M=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559,  $p<.05$ )를 나타내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사회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결과를 보면,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졸업(M=3.47)인 경우가 아동의 사회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M=3.37), 고등학교 졸업(M=3.26), 중학교 졸업(M=3.24), 초등학교 졸업(M=3.2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4.610,  $p<.01$ )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아동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연령,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간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성은 정적 상관관계( $r=.490$ ,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영역과 사회성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의 4가지 영역 모두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어느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사회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077$ ,  $t=3.352$ ,  $p<.01$ ), 생활지도( $\beta=0.136$ ,  $t=5.658$ ,  $p<.001$ ), 가사활동( $\beta=0.047$ ,  $t=2.841$ ,  $p<.01$ )이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 $\beta=0.136$ ,  $t=5.658$ ,  $p<.001$ )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를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067$ ,  $t=2.502$ ,  $p<.05$ ), 생활지도( $\beta=0.151$ ,  $t=5.366$ ,  $p<.001$ ), 가사활동( $\beta=0.054$ ,  $t=2.792$ ,  $p<.01$ )이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 $\beta=0.151$ ,  $t=5.366$ ,  $p<.001$ )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책임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beta=0.109$ ,  $t=3.410$ ,  $p<.01$ )와 학습지도( $\beta=0.076$ ,  $t=2.225$ ,  $p<.05$ )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책임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109$ ,  $t=3.572$ ,  $p<.001$ ), 생활지도( $\beta=0.144$ ,  $t=4.513$ ,  $p<.001$ ), 가사활동( $\beta=0.051$ ,  $t=2.334$ ,  $p<.05$ )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협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요인(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beta=0.085$ ,  $t=2.640$ ,  $p<.01$ ), 생활지도( $\beta=0.132$ ,  $t=3.927$ ,  $p<.001$ ), 가사활동( $\beta=0.053$ ,  $t=2.283$ ,  $p<.05$ ), 학습지도( $\beta=0.076$ ,  $t=2.132$ ,  $p<.05$ )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 학습지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생활지도가 아동의 사회성 하위요인인 근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한다. 이것은 부모들이 첫째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차자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줄어들거나 타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게 애정표현 및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 아내와 잘 협력하며, 자녀에 대해 잘 파악하여 자녀부양역할을 더 잘한다는 윤서영과 정옥분(199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교육을 받음으로서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관습에서 가정 내의 남녀 성차별이 없어지는 결과와 아울러 아동의 성장발달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아동의 사회성은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향상된다. 이는 출생순서가 빠를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다는 박성지(2003)의 연구, 맏이일수록 전체 사회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한조희(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출생순서가 첫째인 아동들이 기대와 관심의 대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동생들을 돌봄에 따라 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성, 근면성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수준도 높으므로 아버지 역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머니만을 부모교육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 그대로 아버지도 포함해야 하며 부모교육에 아버지 자신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예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아버지 교육도 그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의 사회성은 향상된다. 즉, 아버지

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가사활동 및 학습 지도에 아버지가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풍부히 해주어 아동은 대인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자기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근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자녀들이 사회성을 키우지 못하고 사회로 진출했을 때 타인 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아동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생활지도 영역이 아동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된 것을 자상하게 일러주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사회성은 높아진다. 이것은 근래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차원에서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바람직한 아동양육을 위해 아동생활 전반에 관해 항상 관심을 가져 아동과 대화를 많이 하고 아동의 고민, 친구관계 등을 알아 생활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3.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과 일에 쫓겨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의 부족을 겪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지원정책을 통해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자녀 양육에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만 강조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나 회사 내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강연회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대안이 계속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 노동시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아동이 지각한 것으로 연구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응답한 결과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같이 언급하여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으로 한정하였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적 경향을 고려해서 아동의 연령대별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88). **교육학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 김광웅·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Vol.19 No.2**. 한국아동학회.
- 김송자(200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신(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제봉(1996).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현(199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학동기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희숙(1996). **두 자녀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심리적 경험**.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민영순(1994).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박미자(200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박성지(2003).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정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영순(1990). **영·유아의 사회성 및 인지발달에 관한 아버지의 참여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수정(2003).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승덕(2002). **인성교육을 위한 적응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혜영(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성수현(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미(2006).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요현(2006).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신영희(1996).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미숙(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어옥자(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 엄정애·오영희(1997). 부모와 자녀. 서울: 동현출판사.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2005). 가족 실태 조사.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윤서영·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Vol.20 No.2. 한국아동학회.
-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경희 외(1994). 아동발달과 양육. 서울: 형설출판사.
- 이숙현(1995).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 가족학 연구회 가정복지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 가족학 연구회.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 3호. pp. 5-19.
-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지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 이지희(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숙(199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시 국민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

-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정(2004).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 임귀성(1999).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경숙(2000).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정서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원식(1983).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현희·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Vol.16 No.1**. 한국아동학회.
- 조복희 외(1999).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조성자·손은주(199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카톨릭 교육연구 제8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연구소.
- 조주은(2004).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경순(199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행동. **부산여대논문집, vol.31 No.1**, pp. 247-270. 신라대학교.
- \_\_\_\_\_(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윤희(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최지희(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 초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1996). **부모에게 약이 되는 이야기1**. 서울: (주)프레스빌.
- 한은규(200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

- 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조희(2005).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인희(2003). 건강한 부모역할은 부부간 역할 공유에서. 부모에게 약이 되는 이야기. 69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황순영(200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영희(2006).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정희(2003). **아동의 가정 배경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정해(199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Barnett, R. C., & Baruch, G. K.(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pp. 1211-1223.
- Blankenhorn, D(1995). *Fatherless America : Confronting our most urgent social problem*. New York : Basic Books Co.
- Canfield, K. R.(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a father's life course*. Kansas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Hammer, T. J., & Turner, P. H.(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3rd ed.). Needham Height, MA: Allyn & Bacon.
- Harris, K. M.& Morgan, S. P.(1991). Fathers, sons, daughters :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pp. 531-544.
- Ishii-Kuntz, M.(1994). Work and family life. *Journal of family issue*, 15, pp. 490-506
- Lamb, M. E.(1976).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_\_\_\_\_ (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mb, M. E. Pleck, J. H. , & Levine, J. A.(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 The effects of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S.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8), New York: Plenum.
- Lynn, D. B.(1974).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
-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pp. 1265-1277.
- Nicholi, A. M.(1985), *Commitment to Family*, Family Building: Six Qualities of a Strong Family, ed. G. A. Recker, Ventura, CA: Regal Books.
- Parke, R. D.(1981). *Fathering*. London: Fontana.
- Parke, R. D. & Tinsley, B. J.(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 Pleck, J. H.(1984a). *Changing fatherhood*. Unpublished manuscript, Wellesley, MA : Wellesley College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 Russell, G.(1982). Shared-caregiving families : An Australian Study. In M. E. Lamb,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Sagi, A.(198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arious degrees of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he israeli project. In M. E.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 205-232). Hillsdale, NJ: Erlbaum.



<Abstract>

**The effect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on  
the sociability of a child**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Kim, Young-suk**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sup>1)</sup> is to examine whether a father's level of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influences the sociability of the child. The following study issues were set for this research:

1. What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when compa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s family environment: the birth order of the child, the father's age, the father's academic background and whether the mother is employed.
2. What is the difference shown on children's sociabil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s family environment?
3. What kind of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and the child's sociability?
4. Among the sub-areas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leisure activity, guidance, household chores and academic advice), what areas have the biggest effect on the sociability of a child?

---

1)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In order to solve the above study issues, a survey was carried out on 816 children in the 6th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423 boys and 393 girls) located within Jeju city.

The tool used to measure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of the fathers, was a scale composed of 4 sub-areas, 30 questions in total, developed by Kyungsoon Choi (1992). It was used after correction and supplementation. For the tool on measuring sociability, Soonmi Son (2006)'s tool composed of 4 sub elements, 43 questions in total was used.

The data was processed using SPSS(window 12.0) statistic program, and to examine the family'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requency and percentage was calcula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and children sociability, depending on the family'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test and F-test were implemented. In addi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and the child's sociabilit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observe which one among the four sub-areas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child's sociabil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ccordingly:

First,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turned out to be higher when the child's order of birth is earlier, the father is younger and the father has a better academic background.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mother is employed.

Secondly, the sociability of children is higher when the order of birth is earlier, and the academic background of the father is better bu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mother has a job or the age of the father.

Third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of fathers and children's sociability is the relationship of positive correlation in which the higher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is, the higher the

sociability of the child is.

Fourthly, among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the greater the leisure activity, guidance and household chores the father does, the higher the sociability of the child is. Among these areas, guidance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sociability of the child.

In conclusion, the higher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the higher the sociability of the child. Among the sub-areas of the father's participation level in child-rearing, guidance has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child's sociability. The father's enjoyment of leisure activities with his child, actively participating in guidance, participating in household chores and academic advice can make his child's social experience enriched, allow him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and cooperate with other people. These four factors can also help the child have diligence fulfilling his responsibility and sincerely carrying out his work; thus, fathers' active and positive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is required. For appropriate child-rearing, the father has to have an interest in the overall life of the child; he should actively guide the child's life by carrying out many conversations and being aware of the child's worries and relationships with his friends.

## 부 록

<부록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검사지.....	63
<부록 2> 아동의 사회성 검사지.....	65

#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가 여러분의 사회성(대인관계, 책임감, 협동심, 근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가 아니므로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실시되므로 비밀이 지켜지며, 여러분이 답한 내용은 오직 여러분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만 이용될 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지의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면 대답한 내용까지 모두 무효가 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영숙 드림

※ 다음 물음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알맞게 ○표나 번호를 쓰세요.

( ) 초등학교 ( )학년 ( )반

1. 성별 : 남( ) 여 ( )
2. 나의 출생 순서는? ( )  
① 첫째                      ② 중간                      ③ 막내                      ④ 외동이
3. 아버지의 연령은? ( )  
① 30세-39세              ② 40-49세              ③ 50세 이상
4.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5.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 )  
① 직업이 있다.              ② 직업이 없다.

<부록 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검사지

※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평소 나의 아버지의 행동으로 생각되는 곳에 <보기>와 같이 하나만 골라 ○표를 해 주십시오

<보기>

순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가끔 영화관에 함께 가신다.	1	2	3	4	5

※ 다음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고 아버지의 행동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순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가끔 영화관에 함께 가신다.	1	2	3	4	5
2	내가 실수했을 때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자상하게 일러 주신다.	1	2	3	4	5
3	설거지를 도와신다.	1	2	3	4	5
4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1	2	3	4	5
5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신다	1	2	3	4	5
6	내가 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권하신다.	1	2	3	4	5
7	침구를 정돈하신다(이불개기 등).	1	2	3	4	5
8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을 가르쳐 주신다	1	2	3	4	5
9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끔 함께 가주신다	1	2	3	4	5
10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알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 하신다	1	2	3	4	5
11	나와 함께 운동이나 취미 생활(등산, 자전거타기, 낚시)을 하신다	1	2	3	4	5
12	내가 놀고 있을 때 허물없이 끼어들어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가끔 놀아 주신다	1	2	3	4	5

순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항상 그렇다
13	학용품이나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가끔 챙겨주신다.	1	2	3	4	5
14	세탁을 도와신다.	1	2	3	4	5
15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종종 설명해 주신다.	1	2	3	4	5
16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	1	2	3	4	5
17	나와 함께 친지를 방문하거나 외출을 자주 하신다.	1	2	3	4	5
18	학교 숙제를 지도해 주신다.	1	2	3	4	5
19	바쁘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1	2	3	4	5
20	내가 만들기와 같은 어려운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신다.	1	2	3	4	5
21	식사 준비를 도와신다.	1	2	3	4	5
22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신다.	1	2	3	4	5
23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보도록 권하신다.	1	2	3	4	5
24	놀이공원(탑동 놀이공원, 워터월드 등)이나 식물원, 박물관, 전시관에 데려가 주신다.	1	2	3	4	5
25	나와 함께 오락게임을 해 본적이 있으시다.	1	2	3	4	5
26	내가 책을 많이 읽도록 지도해 주신다.	1	2	3	4	5
27	나에게 필요한 학원을 선택해 주신다.	1	2	3	4	5
28	집안의 고장난 곳을 수리하신다	1	2	3	4	5
29	시장보기를 도와신다	1	2	3	4	5
30	집안 청소를 도와신다.	1	2	3	4	5

<부록 2>

### 아동의 사회성 검사지

이 검사지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한 개 골라서 해당하는 곳에 0표를 해 주십시오.

순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2	나는 여럿이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이 놀면 나도 논다.					
3	나는 공부나 일을 혼자서 하는 것 보다 여러 친구와 하는 것이 좋다.					
4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5	나는 나의 친구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집에 일이 있으면 학교 청소 당번을 하지 않고 돌아와도 좋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어린이회에서 정한 '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가한다.					
9	나는 말 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10	나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준다.					
11	나는 친구들과 협조하면서 잘 지낸다.					
12	밤늦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잠이 와도 참고 한다.					
13	나는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들은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한다.					
14	나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15	나는 나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친구에게 아는 체하며 인사를 잘한다.					
17	나는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나중으로 미룬다.					
18	나는 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전체의 의견이면 따른다.					
19	나는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 끝까지 열심히 한다.					
20	나는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순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나는 친구와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지킨다.					
22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논다.					
23	나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24	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다.					
25	나는 학급문고나 도서실의 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는 편이다.					
26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과 협의하기를 좋아한다.					
27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					
2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잘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한다.					
29	나는 혼자서 활동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어울려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30	나는 선생님께서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한다.					
31	나는 친구의 의견이 옳으면 협조해서 잘 도와준다.					
32	나는 주위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33	나는 옛날에 해보았던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34	나는 새로 전학 온 친구의 겉모습이나 옷차림이 이상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35	나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미리 정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36	나는 무슨 일이든지 협동하여 일을 잘 처리해 나간다.					
37	나는 집안 식구가 일을 시키면, 이유를 묻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38	나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하고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39	나는 여러 가지를 말아서 하기를 좋아한다.					
40	나는 청소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청소를 한다.					
41	나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42	나는 어린이 회의시간에 옆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열심히 참여한다.					
43	나는 친구의 어려운 일을 잘 도와준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